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FRICA

아프리카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8~10/04

1. 수에즈 운하 복귀에 따른 아시아-북유럽 항로 및 운임 동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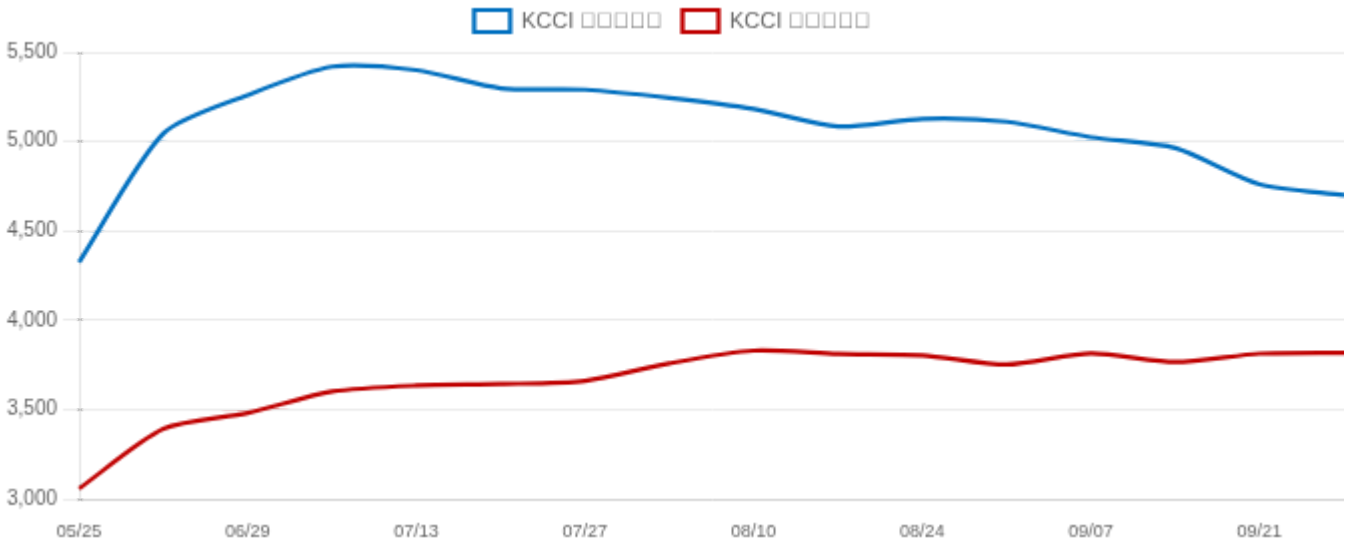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아프리카 권역의 핵심 흐름은 홍해 사태 이후 중단됐던 수에즈 운하 통항이 임박하면서 아시아-북유럽 항로의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선사들이 오는 10월부터 수에즈 경유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1년여간 희망봉 우회로 인해 길어졌던 운송 기간과 급등했던 운임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수에즈 복귀는 공급망 정상화와 운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적으로는 선복 재배치와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복귀 초기에는 수에즈 통항료와 보험료 부담이 운임에 반영되면서 희망봉 우회 대비 운임 하락 폭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중동 정세 재차 악화 시 재우회 리스크도 상존한다. 이에 화주들은 하반기 계약 협상에서 유연한 운송 옵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서아프리카	4,701 $/FEU	09/28	-1.3%	-8.0%
KCCI 남아프리카	3,819 $/FEU	09/28	+0.1%	+1.8%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9/28

수에즈 운하 복귀에 따른 아시아-북유럽 항로 및 운임 동향

> **홍해 사태 이후 중단됐던 아시아-북유럽 항로의 수에즈 운하 복귀가 임박함. 주요 선사들이 10월부터 수에즈 경유 서비스를 재개하며, 이로 인해 운임과 공급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와 오션 얼라이언스 등 주요 선사들이 아시아-북유럽 노선에서 수에즈 운하 경유를 재개함.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소속 선박 4척이 10월과 11월에 아시아를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예정이며, 코스코도 24,200TEU급 초대형선을 투입해 2년 만에 서향 통과를 재개함. 이는 홍해 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요 선사들이 정기 서비스에서 수에즈 운하를 선택한 사례임.

복귀의 주요 원인은 후티 반군의 유럽 선박 공격 중단 의사 표명과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임. 후티 지휘부가 EU에 유럽 화물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고, 9월 이후 수에즈 운하 통과 선박이 급증함. 지난주에만 4,000TEU 이상 컨테이너선 30척이 통과하며 202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5월 이후 총 140척이 우회에서 수에즈로 전환함.

수에즈 복귀는 운항 거리 단축과 선복 공급 증가로 이어져 아시아-북유럽 운임 하락 압력을 높임. 약 200만TEU의 선복량이 수에즈로 복귀하면서 희망봉 우회 시의 선복 부족 현상이 완화될 전망임. 동시에 유럽 항만의 혼잡 해소 및 일정 정시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복귀 과정에서 일시적인 스케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안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일부 선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임. 후티의 공격 중단 약속이 이행될지 불확실하며, 수에즈 운하 당국의 통행료 정책과 보안 조치가 복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수에즈 복귀 선복 증가로 인한 운임 경쟁 심화는 선사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있음.

-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10월 19일 램차방 출항 One Continuity호부터 수에즈 경유 FE1 서비스 재개
- 코스코, 10월 4일 OOCL Spain호로 2년여 만에 첫 서향 수에즈 통과
- 지난주 4,000TEU 이상 컨테이너선 30척 수에즈 통과, 2024년 이후 최대
- 5월 이후 총 140척, 약 200만TEU 선복이 희망봉 우회에서 수에즈로 전환
- 후티 반군, 유럽 화물선 공격 중단 서한을 EU에 전달

전망

수에즈 운하 복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안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단기간에 전 선박이 복귀하기는 어려움. 운임은 공급 증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됨. 향후 후티 반군의 태도와 국제 안보 협력이 복귀 속도를 좌우할 것임.

시사점

화주 — 운임 하락과 리드타임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기회가 생기나, 일정 불확실성에 대비한 완충 재고 전략이 필요함.

포워더 — 운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 조정과 고객사 대상 시황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함.

선사 — 수에즈 복귀로 운항 비용은 절감되나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선복 조절과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함.

참고자료: gCaptain, Premier Alliance prepares for Asia-N. Europe services return to Suez (검색일: 2026-10-04)